

2019년 5월

봄호

# CHA PHARM *IN*

약대생이 쓰는 약대 이야기



# 편집부의 말

몇 년 전에 재밌는 광고 한 편을 본 적이 있습니다. 공익적인 메시지를 담은 29초짜리 광고 컨테스트에서 상을 받은 작품이었는데, 내용은 이렇습니다. 한 남성이 길을 걸으며 통화를 하다 '영상통화를 대체 누가 쓰냐'고 말하는 순간, 도로 한 켠에 앉아 영상통화를 켜고 '수화'를 하는 이를 보는 장면이 나왔죠. 본인이 경험해보지 않으면 특정 기술이 어떻게 사용될 수 있는지도 정확히 알 수 없다는 것을 직관적으로 전달하는 영상이었습니다.

저는 올 봄에 그런 충격을 두 번 받았습니다. 하나는 직접 실습생으로 약국에 나가 환자를 대하면서 교과서에서 배운 지식들이 실제로 어떻게 사용되는지를, 그리고 어떻게 사용되어야 하는지를 배운 것이었습니다. 종이에 납작하게 박제되어 있던 질병들은 실제로 약국에 걸어 들어오는 환자들이었고, 그들이 내민 처방전에는 화학식으로만 보던 약들이 손에 잡을 수 있는 약으로 구현되어 있었습니다. 포천에서의 3년이 허투루 지나가질 않은 것입니다.

개인적 차원에서는 물론이고, 소식지의 편집장으로서도 비슷한 일이 있었습니다. 실습으로 인해 포천을 떠난지라, 이번 봄 호는 소식지 역사상 최초로 '온라인 회의'를 통해 발간 준비를 하게 된 것입니다. 아직 얼굴도 제대로 익히지 못한 후배 분들과 메시지를 통해 업무를 나누고, 기사를 작성하는 것은 무척 새로운 경험이었습니다. 그렇게 네 번째이자, 편집장으로서의 마지막 소식지의 편집이 끝났습니다.

편집장 임기동안 여러 분들께 신세를 졌습니다. 물심양면으로 지원해주신 약학대학 교수님들은 물론이고, 동기의 꼬드김에 넘어가 편집위원 직을 맡아준 다섯 명의 14학번 편집위원(백승원, 서현희, 송지연, 최지혜, 홍경민)에게도 이 자리를 빌어 감사를 드립니다. 뒤를 이어 편집장을 맡고, 소식지를 만들어갈 후배님들께서는 저보다 <차팍인>을 더 잘 이끌어 주시리라 믿습니다. **편집장 박한솔 올림**

## 지도교수

양영덕, ntsky0816@cha.ac.kr

## 편집장

박한솔 (약학과 14), chapharmin@naver.com

## 편집위원/취재팀

김태환 (약학과 16), 태소정 (약학과 16), 박지수 (약학과 17)  
김은혜 (약학과 16), 김성연 (약학과 16), 손효정 (약학과 17)  
전상원 (약학과 16), 이현주 (약학과 17)  
정영운 (약학과 16), 오윤정 (약학과 17)

## 발행회차

2019년 봄호 / 2019년 5월

## 펴낸곳

차 의과학대학교 약학대학 교지편집부



## 01

목차 / 편집부의 말

## 02

[취재] 화이트코트 세레모니

## 03

송우미식회

## 04

[취재] 약사 국가고시 응원

## 05

차약 앙케이트

## 06

[기고] 약대 정원 증원 이후

## 07

[특집] 진로노트 : 공직약사

## 08

[취재] 신입생 오리엔테이션

## 09

팜파라치

## 10

[인터뷰] Dorm sweet dorm



# 정든 포천을 떠나 각자의 실습지로

## 새하얀 가운을 입은 예비약사들

이리파 노트

지난 11월 23일 차의과학대학교 현암기념관에서 화이트 코트 세레모니가 진행되었다. 이 날 행사에는 약학대학교 교수들과 차의과학대학교 내빈들, 학부모들은 물론 다수의 외빈들까지 가운 수여식을 축하하기 위해 현암기념관을 찾았다.

행사는 약학대학 서영거 학장의 축사를 시작으로 본교 서재원 부총장과 성남시 약사회 한동원 약사회장이 실습에 임하는 학생들을 위해 격려와 조언을 이어갔다.

축사가 모두 끝나고 14학번 재학생들의 학교생활을 담은 동영상 상영되었다. 영상은 재학생들이 다른 동기에게 익명으로 편지를 보내고, 그 편지를 읽고 답하는 형식으로 진행되었다. 3년간 포천에서 같이 생활하며 느꼈던 감정과 포천을 떠나며 느낀 소회를 솔직하게 나누며, 행사에 참여한 14학번 학생들 모두 우수에 빠졌다. 그러다 지난 3년간의 생활을 담은 재미있는 사진이 나올 때면, 행사장이 웃음으로 가득 채워졌다.

다음으로 행사의 꽃인 디오스코리데스 선서가 진행되었다. 선서에 앞서 약학대학교 교수들이 제자들 한 명, 한 명에게 가운을 입혀주었다. 모든 학생이 가운을 입자 선서가 진행되었다. 학생들은 엄숙한 분위기 속에서 실습생

으로서의 자세와 마음을 다잡으며 선서에 임했다. 박찬섭, 오주원 대표 학생의 선서에 복창하며 선서식은 마무리 되었다.

공식 일정이 끝나자 학생들은 후배들이 전해 준 꽃다발을 들고 삼삼오오 모여 기념 사진을 촬영했다.



디오스코리데스 선서를 하는 박찬섭(좌) 오주원(우) 학우

화이트코트 세레모니에 참여한 15학번 최동현 학우는 “하얀 가운을 걸치고 학교를 떠나 실습지로 나아갈 선배들의 모습이 너무나도 자랑스러웠다.”라고 참석 소감을 밝혔다.

이날 행사에는 예년과 달리 많은 학부모님과 친지들이 참석해 실습을 나가는 학생들에게 더욱 뜻깊은 자리가 됐다.

Q. 행사에 참여한 소감과 후배들에게 전하고 싶은 말이 있다면?

흰 가운을 입고 선서를 하니 진짜 약사가 된다는 책임감이 느껴지고 사명감이 생기게 되었어요. 3년동안 공부하는게 쉽지만은 않았지만 약사가 된다는 일이 쉬워서는 안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배우는 것들이 훗날 정말 중요하게 쓰이는 날이 오니 포천에서의 3년을 소중히 보내세요! 생각보다 금방 간답니다.

14학번 이소영

작년에는 13학번 선배님들의 기념식을 준비하는 입장이었는데, 올해는 주인공이 되니 현실이 아닌 것 같습니다. 동기들의 재미있는 질문과 리액션이 담긴 동영상 시청, 엄숙했던 가운수여식과 선서, 모든 차약인들이 함께 어우러진 기념촬영 등 행사의 모든 순간들이 행복 그리고 감사한 잊지 못할 순간들이었습니다. 행사에 참여해주시고 잘 준비해주신 후배님들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여러분들도 금방입니다. 내년, 내후년의 주인공은 여러분입니다. 조금만 더 파이팅 하세요!

14학번 김동현

선배들이 알려주는 포천맛집

# 송우미식회

닭이봉 춘천 닭갈비

대표 메뉴 : 닭갈비, 막국수



전화번호 : 031-544-1707

맛집별점 : ★★★

배달여부 : 배달 X / 포장 X

모임이 있을 때 어떤 맛있는 음식을 먹을지 고민하고 계신가요? 여럿이서 한 철판에서 얘기하면서 오손도손 얘기하며 먹을 수 있고 또한 양도 푸짐하기 때문에 배부르게 먹을 수 있습니다. 특히 소스가 맛있기 때문에 닭갈비를 다 먹고 볶음밥을 먹는다면 이보다 맛있는 것은 없을 것 입니다.

대구반야월막창

대표 메뉴 : 생막창



전화번호 : 031-051-5479

맛집별점 : ★★★

배달여부 : 배달 X / 포장 X

지금까지 이런 막창은 없었다. 이것은 고기인가 막창인가! 여러분 오늘따라 막창이 먹고 싶으신가요? 그렇다면 이 집을 강력하게 추천합니다!! 향정사를 씹는 것처럼 씹는 순간 육즙이 터져 나오면서 꼬들꼬들한 식감까지 완벽한 막창입니다. 막창도 완벽한데 장은 또 얼마나 맛있게요..



우정아파트

하나로마트

우리병원

전상원 이현주

# 약사국가시험 합격을 기원합니다

2019. 1. 25

대한약사회

70

## 약사국가시험 합격을 기원합니다

서울특별시약사회

제 70회 약사 국가고시가 열린 서울 광진구 광장중학교

# "올해도 약사 100% 합격"

## 제 70회 약사 국가고시 진행

지난 1월 25일, 전국 5개 지역에서 2019년도 제70회 약사 국가고시가 시행되었다. 올해 약사 국가고시에 응시한 본교 졸업생은 총 44명이었다. 지방으로 내려가서 응시하는 2명을 제외하고, 42명의 학생들은 서울 광진구에 위치한 광장중학교에서 시험에 응시했다.

이른 아침부터 약학대학 서영거 학장과 최현진 학과장, 양영덕 교수와 제9대 약학대학 학생회 '차근차근'이 선배들을 응원하기 위해 광장중학교에 모였다. 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교수들과 후배들은 교문 앞에서 선배들을 밝은 얼굴로 맞이하며 응원했다.



국가고시 응시생을 격려하고 있는 최현진 학과장(좌)과 양영덕 교수(우)

진심 어린 응원에 더해, 간식과 도시락도 전달되었다. 응원에 참여한 후배들은 간식을 담당하는 팀(최신예(15), 정민영(16), 이영미(16), 신다영(16))과 도시락을 담당하는 팀(이유진(16), 정다섭(16), 박준석(16))으로 나눠 시험을 보는 선배들을 챙겼다.

추운 날씨를 물리쳐 줄 핫팩과 함께 간식으로 과자와 음료수, 그리고 마카롱 등을 준비하였고, 점심시간에 맞추어서는 불고기와 제육볶음으로 나눠 두 가지 종류의 도시락이 선배들에게 전달되었다.

응원에 참여한 신다영(16) 학우는 "책을 보며 정신없이 걸어오는 선배들을 보며 너무 고생하신다는 생각이 들었다"며 "힘이 될 것 같다는 마음에 춤지만 더 열심히 간식을 나눠드리고 응원을 했다"는 소감을 전했다.

지방에서 따로 시험에 응시하는 두 명의 선배들도 잊지 않았다. 택배를 통해 동일한 간식이 전달되었고, 여건상 도시락을 전달할 수가 없자보니 이를 대신하기 위해 방석이 선물로 전달되었다.

이날 치루어진 국가고시의 결과는 2월 18일에 나왔다. 제70회 약사 국가고시 합격자 발표가 이루어졌고, 우리



국가고시 응시자들에게 전달된 과자와 음료수, 마카롱 간식세트

학교 44명의 학생들은 전원 합격하는 쾌거를 이루었다.

약학과 최현진 학과장은 "차의과대학교 약학대학 교수님들의 우수한 교육과 학생들의 노력이 어우러져 이루어낸 결과"라며 "4년 동안 최선을 다한 학생들의 노력에 박수를 보내며 앞으로 졸업 후 훌륭한 약사이자 사회인으로 성장해 나가길 기원한다"는 격려를 전했다.

한편, 이번 약사국가고시의 합격률은 6년제 전환 이후, 최저 합격률인 90%를 기록하였다.

박지수 기자

# 차약 앙케이트

## 연애 횟수가 가장 많을 것 같은 학우는?

36%



억울합니다....  
왜죠 ㅠㅋㅋㅋ

17 최성웅

30%



하하하 그런가요?  
다양한 사람을 만나보아야  
자기 자신도 더 발전  
하는 것 같아요~^^

16 홍혜린

35%



부끄럽네요... ㅎㅎ  
열심히 살겠습니다!

15 최동현

## 잠이 가장 많을 것 같은 학우는?

28%



이제 그만 자고  
일찍 일어나는  
부지런한 사람이  
되겠습니다 ㅠ

17 신승이

27%



잠이 보약이라잖아요  
ㅎㅎ 다들 컨디션 관리  
잘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16 정다섭

77%



도 안하고  
아무것도 안하고 있지만  
더 격렬하게  
저도 안하고

아무것도 안하고 싶다  
아무것도 안하고 있지  
만 더 격렬하게 아무  
것도 안하고 싶다

15 김소연

## 요새 뜨는 핫플레이스를 가장 잘 알 것 같은 학우는?

24%



1위로 뽑혀 매우 기쁘구  
동기들의 핫플 나들이는  
제가 책임지겠습니다

17 박도은

30%



장소는 제가 알아볼테니  
시간만 비워 주세요~  
우리 같이 가요~^^~

16 김성연

41%



너무 영광이구요!  
누구든 핫플 궁금하면  
물어보세요~ 제가  
정보 공유 해드릴게요

15 한지수

## 번외편 : 배우자에게 손편지를 가장 많이 주었을 것 같은 교수님은?



감사합니다! 아내가 더  
좋아할 소식이에요 ^^  
손편지 엄청 썼죠!

양영덕 교수



발편지도 쓴 적 없음

손우성 교수

## 약대 정원 증원 결정 이후: 함께 나누고 싶은 이야기

최근 2개 약대의 추가신설이 확정되었다. 약사집단 관점에서 보면 신규진입 제한 역할을 하는 약대 정원의 문제가 매우 중요한 사안인지라, 정부의 이번 결정에 기성약사들이 보여준 민감한 반응은 어찌 보면 당연하다. 약대 학생들 또한 약사회와 결을 같이하는 건, 심한 경쟁을 뚫고 진입한 인력시장에서 나름 기대하는 미래의 안정성에 약간의 흠집이 날 수 있다고 판단하는 것이니 이 또한 이해된다.

그러나 이 같은 부정적 인식에서 조금만 방향을 틀어, 좀 더 생산적이고 전략적이고 미래지향적인 얘기를 함께 나누고 싶다.

**첫째,** 약사 양성 교육이 왜 필요한지를 정확히 이해하는 것이다. 약대 교육은 변화하는 사회에서 필요로 하는 약사 역할의 수요에 따라 변화될 수 밖에 없는 응용학문 영역에 있고, 따라서 약사들은 주어진 사회적 역할을 정확히 이해하고 이를 충실히 이행함으로써 그 존재가치를 유지해야 한다.

그러니, 약대 교육기간은 한 개인이 약사의 기득권에 편입하고 기득권 유지를 위한 사회적 배타성을 키우는 시간이어서는 안 된다. 6년제 시행 이후 매년 1700여명의 신규약사가 배출되고 있지만, 약국 편중은 외려 심화되고 제약산업 진출비율은 낮아진 현 상황이 이번 약대 정원 증가 결정과 무관하지 않으니, 이번 결정에 약사사회가 대놓고 반기를 들 명목도 면목도 없다. 오히려 약사의 직업관을 재조정하고, 진출영역의 다각화와 균형성을 위한 구체적이고 실천적인 논의를 시작할 기회로 삼아야 할 것 같다.

**둘째,** 약학교육의 내용과 방법에 관심을 가지는 것이다. 사회적 기대에 부응하는 역할을 수행하는 데에는 약사의 질적 수준이 더 중요한 만큼, 약대 정원 자체를 쟁점화하는 수준을 뛰어넘어, 약대에서의

공부내용과 방법이 약사전문성을 실현하는 데 최적인지를 함께 논의해도 좋겠다.

기존약사들의 모습에서 무엇이 어떻게 변화되면 좋을지 객관적으로 냉철하게 비판해보고, 보다 긍정적인 사회적 평가를 기반으로 미래에도 지속가능한 직업이 되기 위해서는 교육자와 피교육자가 어떻게 함께 노력할 것인지를 논의하면 좋겠다.

**셋째,** 미래사회에서의 약사 역할을 어떻게 정의해 나갈지 고민하는 것이다. 약대 정원은 전문성이 필요한 분야의 약사 수요를 고려하여 결정되므로, 약사들이 약국, 병원, 산업, 공공, 연구 분야에 균형있게 진출하여 각 분야에서 제 역할을 충분히 잘 해내고 있음을 실천적으로 보여줘야 한다.

이번 증원 결정에 영향을 미친 약국편중현상을 뛰어넘어야 함을 기억했으면 한다. 그리고 그렇게 인력이 편중된 약국환경에서도 의사처방전 점유가 가장 큰 관심사인 현 상황에서는 약대 정원 증가는 곧 약국경쟁심화를 부추길 갈등요소로 해석될 것이다.

따라서, 그간 약국 안에만 머물러 있던 눈과 귀를 이제 약국 바깥으로도 열어주기 바란다. 우리나라 중장기 보건 의료 정책방향이 어떻게 나아가고 있는지에도 관심갖고, 세계적인 동향도 들여다보았으면 한다.

약대를 졸업하면 결코 짧지 않은 세월을 약사로 살아갈 여러분. 약사로서의 삶이 곧 내 삶이되기에, 관찰은 나의 삶을 위해 좋은 약사상에 대해 고민하고 흔들리지 말고 실천해야 할 가치에 대해서 성찰해 보는 그런 공부를 놓지 않기를 바란다. 가까이에서 응원할 터이니...

**차 의과학대학교 약학대학 손현순 교수**



사회약학 담당  
손현순 교수

# 들어는 봤니, 공직약사

안녕하세요 여러분! 이제 갖 학교에 발을 내디딘 신입생 학우 분들, 새로운 학기를 시작하고 계신 재학생 학우 분들 모두 진로 고민이 많으시죠? 그래서 저희 '차팝인'에서 여러분들의 진로선택에 보탬이 되고자 '직무/진로'에 대해 알아보는 새로운 코너를 마련했습니다. 이번 봄호에서 첫 번째로 살펴볼 직업은 바로 '공직약사'입니다.

## 약사면허 있는 '공무원'

공직약사란, '국가·지방자치단체에서 종사하는 자로서 약사면허를 갖고 있는 자', '국가·지방자치단체에서 약사 업무에 직·간접적으로 종사하는 공무원으로 약사면허를 갖고 있는 자'를 뜻합니다. 공무원 중 약사면허 소지자는 총 779명이며 (2013년 행정자치부 '공무원 총조사' 결과), 약사가 많이 근무하고 있는 중앙부처 상위 세 곳은 식품의약품안전처(302명), 보건복지부(54명), 특허청(36명)입니다. 이 외 공공기관으로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83명), 국민건강보험공단(18명), 한국 의약품안전관리원(28명), 한국 보건사회연구원(3명), 한국희귀 의약품센터(36명) 등이 있습니다(2017년 2월 기준).

공직약사의 역할은 크게 세 가지로, 첫 번째는 **법령 제·개정**입니다. 약사와 연관된 법령,

약사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실험동물에 관한 법률, 화장품법, 국민건강보험법 등을 제·개정합니다. 법률안을 마련하여 국회에 제출하기도 하고, 국회 상임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 등에 참석하여 정부 측 입장을 전달하기도 합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

공직약사의 역할 두 번째는 **약사 정책 수립**입니다. 법령과 제도가 현장에서 잘 적용되고 있는지 살펴보고, 국민의 요구 점과 개선사항 등을 검토하며 앞으로의 방향성과 구체적인 시행 방법을 도출합니다. 의약품 재분류, 의약분업, 안전상비 의약품 등의 업무에서 주요 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은 **법령과 예산의 집행 업무**입니다. 약국·도매상·의약품 제조업소에 대한 관리, 감독, 의약품 인허가, 부정·불량 의약품 유통 차단, 병원에서의 의약품 조제, 연구실에서의 실험·조사·분석 업무 등을 하고 있습니다.

공직약사는 약사로서 전문성을 발휘하며 행정적인 업무를 같이 할 수 있다는 장점, 연금과 고정적인 수입, 안정된 직업이라는 장점이 있지만, 다른 직종에 비해 적은 보수, 많은 업무량 등으로 인해 전체 약사 중 매우 적은 비중을 차지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 공무원의 장점에 더해 약학 지식도 활용 가능

보건복지부 약무정책과에서 근무했던 유대규 사무관은 '의약품정책연구소 2017년 12권'에서 "공직약사를 준비하는 사람은 정치, 경제, 사회, 역사 등 다양한 분야에 관심을 가지면 좋다"며 "행정법을 읽어두면 용이하고, 말하기 보다 듣는 것을 좋아하는 습관, 글을 잘 쓰는 훈련을 해두면 조직에서 인정받는데 도움이 될 수 있다"고 언급했습니다.

또한 김광호 전 대전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은 약사의 덕목으로 전문성, 소통능력, 청렴을 꼽았습니다.

위와 같은 덕목들이 본인의 가치관과 일치하고 약무, 보건, 환경, 방역 분야의 정책수립과 행정업무에 관심이 있는 학우분들은 공직약사에 대해 고민해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태소정 기자



차 바이오 캠퍼스에서 약학대학 신입생 오리엔테이션 프로그램 '차대가 알고싶다' 코너가 진행 중이다

# "앞으로의 약대 생활 너무 기대"

## 2019 약학대학 신입생 오리엔테이션 진행

지난 2월 27일, 판교 차 바이오 캠퍼스(CHA BIO COMPLEX)에서 '2019 차 의과학대학교 약학대학 신입생 오리엔테이션'이 진행되었다.

오리엔테이션 1부에서는 제 9대 학생회장인 이유진 학우(16)의 학생회 소개 및 전국약학대학학생협회(전약협) 소개가 진행되었다. 9대 학생회인 '차근차근'의 전체 조직에 대한 간단한 설명 이후, 기획국, 미디어국, 사무국, 학술국의 4개 국 국장들이 나와 각국의 구성원과 주요 사업 소개, 그리고 신입생 선발 계획에 대해 특색 있게 소개하였다.



점심식사 이후 서영거 학장의 개화로 신입생 오리엔테이션 2부가 시작되었다. 최현진 학과장의 학과 소개, 학과 비전 소개 및 교수진 소개가 이어졌다. 교수진 소개는 분과별로 이루어졌는데, 각 교수별로 자신의 전공 분야와 강의를 맡은 교과목을 소개하고 교수마다 배정된 지도제자를 한 사람 한 사람 호명하는 시간을 가졌다.

학과에서 준비한 따뜻한 커피와 도넛으로 쉬는 시간을 보낸 뒤, 3부가 시작되었다.

노란 옷을 맞춰입은 김선우 학우(16)와 정다섭 학우(16)의 재치 넘치는 사회로 오리엔테이션 3부의 꽃인 레크리에이션이 진행되었다.



'내 짝꿍 차약이를 소개합니다'라는 코너에서 서로를 알아가기 위한 질문들이 무수히 오고갔다. 각자의 짝꿍을 발표할 때 가장 큰 웃음을 주었던 이한주 학우(17)와 서윤주 학우(17)에게 영화티켓 2매가 선물로 주어졌다. 이후 '차대가 알고싶다'라는 골든벨 또한 진행되었다.

이날 약학대학 신입생 대표로 선서를 한 홍정택 학우(17)는 "신입생 오리엔테이션이 너무 재밌었다"며 "선배님들과 교수님들이 신경 써주시는 것이 느껴져 앞으로의 약대 생활이 기대된다"는 소감을 남겼다.



17학번 홍정택 학우

앞으로 약대 생활에서 하고 싶은 일이 무엇이나는 질문에 그는 "동기들과 여행을 가보고 싶다"는 의외의 대답을 내놓았다. 스트레스 너무 받지 않고 편안하게 약대생활을 즐기고 싶다는 것. 짧은 인터뷰를 끝으로 레크리에이션이 종료됐고, 저녁식사가 이어졌다.

신입생 오리엔테이션의 행사 실무를 맡은 약학대학 부학생회장 이영미 학우(16)는 "학생회가 열심히 준비하고 일해 주어서 첫 행사를 재밌게 잘 마무리할 수 있었던 것 같다"며 "신입생들도 전원 참석해주어서 감사하다. 앞으로 즐거운 학교생활을 같이 만들어나갔으면 한다"는 감사의 인사를 전했다.

김은혜 기자



#점심먹은\_뒤\_흔한\_대학교\_교실 #식곤증도\_전염이\_되나요?  
#쉬는시간\_쪽잠이\_리얼\_꿀잠 #카페인\_효과는\_아무도\_보지\_못한걸로  
#수업시간에는\_모두\_초집중 #꿈에서\_만나요

김성연 기자



#4학년\_여신모임 #이슬말고\_피자\_먹어요 #해솔마당\_피크닉  
#미래관에서\_돛자리\_빌려줌 #이것이\_대학생활  
#차약이들\_다같이\_즐거워

손효정 기자



#약대vs.바이오공학과\_축구시합 #국가대표\_만큼\_비장한\_공차  
#지금은\_공차\_황금기 #음료수\_좋아하는\_공차 #결과는\_2:0\_대승  
#공차는\_아직\_목이\_마르다고\_합니다 #모두\_수고\_많으셨습니다!

김성연 기자



#요즘\_약대생들의\_정신건강과\_리듬감을\_위해\_모인\_요정  
#이\_사진보고\_약대생활\_즐거워\_보인다면\_아주\_큰\_오예입니다  
#공부도\_잘하고\_춤도\_잘추면\_사기\_아닌가요? #화목한\_요정가족  
#이곳에서\_언어는\_필요없다\_오직\_춤으로\_소통할뿐

김성연 기자



## Dorm sweet dorm

약은 약사에게, 기숙사는 사생들에게!

집보다 기숙사에 더 오랜 시간 머무른다는 차악 사생들의 학교 생활을 알아보기 위해 17학번 고준영, 16학번 정다섭, 15학번 오해준 학우를 만나보았습니다.

**올해 기숙사는 처음,  
17학번 고준영 학우**

Q. 자기소개 부탁드립니다.

A. 안녕하세요. 해룡4인실 사는 고준영입니다.

Q. 주말에 기숙사에 있을 때 무엇을 주로 하시나요?

A. 주말에 이불 빨래를 시작으로 아침을 맞이합니다. 저는 일주일에 한번씩 이불을 빨기 때문에 보통 사람이 많이 없는 주말 아침을 택합니다.

그리고 편의점에 가서 아침을 먹은 후, 방에 돌아와서 청소를 합니다. 주말에 룸메들이 다 집에 가기 때문에 다른 친구들의 자리까지 청소를 해줍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물건들이 많이 없어서 룸메들 것을 자주 빌려 쓰기 때문에 청소는 제가 나서서 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했습니다.

청소까지 마치면 점심을 먹는데, 기숙사에 남아있는 동기들과 같이 먹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 후 낮잠도 자고 밀린 과제도 하면서 남은 시간을 보냅니다.

저는 운동하는 것을 좋아하는데, 사람이 없으니 넓은 공간에서 노래를 틀으며 혼자 운동하는 것이 주말동안 가장 즐거운 일입니다.



빨래요정이 애용(?)하는 세탁실

Q. 동기들 사이에서 빨래요정으로 불리실 정도로 빨래를 자주 하신다던데 빨래할 때 팁이 있을까요?

A. 특별한 팁은 없고 건조기를 이용하면 큰 이불빨래도 간편하게 할 수 있어 좋습니다.

Q. 기숙사에서 가장 좋아하는 공간은 어디인가요?

A. C동 2층 휴게실을 제일 좋아합니다. 요즘은 시험기간이라 동기들이 도서관 쪽에서 많이 모이지만, 한가할 때는 아무때나 가도 누군가가 있을 정도로 만남의 장소였습니다.

동기들과 삼삼오오 모여서 같이 미생물학 오랄 테스트를 연습하고, 배달음식도 같이 먹으며 재밌게 놀 수 있어서 좋습니다.

**구관으로 동지를 옮긴  
16학번 정다섭 학우**

Q. 자기소개 부탁드립니다.

A. 안녕하세요. 1년동안 해룡 학사에 살다가 올해부터 청운 216호에 거주 중인 16학번 잠만보 정다섭입니다.

Q. 주말에 기숙사에서 주로 무엇을 하시나요?

A. 이번 학기에는 주말에 집을 한 번도 방문하지 않았네요. 작년에는 기숙사에서 많이 잤

는데 올해는 스타일이 바뀌어서 웹서핑을 주로 해요. 뿐만 아니라 부모님께 안부인사를 드리기도 하고 서울 맛집 탐방을 하며 시간을 알차게 쓰고 있습니다.

Q. 부모님이 그림진 얹으신가요?

A. 저희 부모님이 포천에 자주 오시는 편이세요. 그래서 같이 송우리에서 식사도 하며 시간을 보내요.

Q. 청운과 해룡 두 기숙사사만의 장점 한 가지씩 알려주세요.

A. 청운은 과학관과 가까워서 시간을 아낄 수 있어요. 그에 비해 살짝 먼 해룡은 시설이 좋아요. 해룡의 헬스장을 특히 좋아해요. 곧 여름이잖아요, 운동을 자주 하려고 노력하고 있어요..

Q. 어느 기숙사를 더 추천하시나요?

A. 저는 방 크기가 커서 쾌적한 청운을 더 추천해요. 앞으로도 청운에 계속 거주하고 싶어요.

Q. 지금 룸메이트는 누구신가요?

A. 정진규 군과 같은 방을 사용하고 있어요. 서로 진중한 타입이라 방에서는 조용한 편이에요. 그래서 싸울 일도 없고 잘 지내고 있어요.



기숙사생은 모두 이용 가능한 해룡학사 내 체력단련 시설



역사가 오래된 상록학사, 청운학사

### 기숙사만 3년 차 '만렙' 15학번 오해준 학우

Q. 자기소개 부탁드립니다.

A. 안녕하세요. 저는 청운학사 4인실에 살고 있는 15학번 오해준이라고 합니다.

Q. 기숙사에 얼마나 오래 거주하셨나요?

A. 3학년 1학기부터 2년 넘게 쪽 살아왔어요. 청운학사 2인실, 4인실, 해룡학사 C동 2인실 모두 살아 봤네요^^

Q. 정말 오래 거주하셨군요! 차대 기숙사만의 장점을 알려주실 수 있으신가요?

A. 우선 기숙사의 장점은 무엇보다 강의실과 가깝다는 점이에요. 또한 통학생들보다 늦잠을 잘 수도 있고 점심시간이나 공강이 생기면 언제든지 쉬고 싶을 때 들어가서 쉴 수도 있어요.

통학을 하게 된다면 시험기간에도 버스 시간에 맞춰 집에 가

야 하지만 기숙사생들은 새벽까지 공부하고 들어갈 수 있어요.

마지막으로 기숙사에 살면서 동기들은 물론 선후배들도 많이 만나면서 가까워 질 수 있었어요!



상록학사의 4인실 전경

Q. 주말에는 기숙사에서 무엇을 하시나요?

A. 주말에 기숙사에서는 쪽 늦잠을 자거나 동아리에 나가요. 룸메이트나 아는 사람이 모여 외식을 하기도 하구요. 주말에 공부를 하고 있다면 그 주는 시험기간인거예요.

Q. 마지막으로 한 마디 부탁드립니다.

A. 기숙사의 장점만 말하기에는 단점도 분명 있어요..ㅎㅎ 모두가 알고 있을 것 같아 이만 말을 마칠게요!

김성연, 손호정 기자

## 차팜인을 후원해주세요!

독자 여러분, 이번 봄호 즐겁게 보셨나요? 차팜인은 차의과학대학교 약학대학 구성원들이 함께 어울려 만드는 소식지입니다. 발간을 이어 가면서, 지속적 운영을 위한 시스템 구축의 필요성을 절감하였습니다. 보다 나은 소식지를 만들기 위해 여러분의 후원을 기다립니다.

**국민은행 676502-04-041501 (예금주: 박한슬)**

보내주시는 소중한 마음, 알뜰히 사용하여 더 좋은 지면으로 보답드리겠습니다. 관련하여 문의 사항이 있으시면 아래 편집장 연락처로 연락주시면 성실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chapharmin@naver.com / 010-3190-8701**

## 여러분의 원고를 기다립니다!

약학대학 소식지 <CHA PHARM IN>은 차약인들이 직접 차약인들의 소식을 담아, 차약인들과 나누기 위해 만들어졌습니다.

차약인들과 나누고 싶은 소식이라면, 어떤 것이건 환영합니다. 짧은 수필, 나누고 싶은 정보, 재밌게 읽은 책에 대한 소개, 방학을 이용해 다녀온 여행의 기록, 소중히 그린 그림, 사진, 만화, 문학 등.

지면이 허락하는 한계 안에서는 최대한 실을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을 약속드리니, 주변의 소식지 편집위원에게 기탄없이 질의 하시거나 편집장 박한슬에게 연락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기고해주시는 분들께는 소정의 답례 역시 준비되어 있습니다. 차약인 여러분의 많은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CHA PHARM IN> 편집장 박한슬**  
**chapharmin@naver.com / 010-3190-8701**

